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7주일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른손으로 가꾸신 포도밭을
 버려두지 않으시듯, 언제나 교회를 보살피고 가꾸시니,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가지만 저희가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10월 기도지향

-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가정
- 김병철 베네딕토,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주님께서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는 지역들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묵주기도 성월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묵주기도 성월’을 제정하시며,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였습니다.

구역모임

- 1구역 : 10/11(토) 7시, 정석원 라파엘/안해진 임마콜라따 가정
- 2구역 : 10/10(금) 7시30분, 차호섭 요셉/최선윤 마리아 가정
- 3구역 : 10/11(토) 7시, 안병환 발렌티노/안현숙 크리스티나 가정

예비자 교리반 안내

- 첫 모임 : 10/7(화) 오후 8시
- 장소 : 성당 지하실

☞ 예비자 봉헌에 공동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 주소록 발행

<2015년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주소록>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누락되는 교우 가정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총괄책임은 선교부에서 담당하겠습니다.

사제관과 회관 DECK 철거

평협의 결정대로, 10/18(토) 오전 9시부터 사제관과 회관의 DECK을 철거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 10/11(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어 성당

기타

- 선교분과에서 본당 홍보용 포스터와 명함을 만들어, 교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선교부장(정수한 베드로)께 말씀하기 바랍니다.
- 교무금은 점심식사 전, 재무 위원들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61	218	153/182	4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이원준 요한	이우영 가브리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안광민 야고보
차주	문호진 안토니오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서은 세라피나	차호섭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손정화, 한춘희, 양정희, 유경애
차주	박혜정, 조지연, 장남순, 김경돌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9/28	85명	412불	1,410불
류기범, 김호원, 박재천, 김대성, 김태중, 이현주, 전영민, 주영길(총 8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주인의 뜻과는 달리 악행을 일삼는 포도밭 조각인의 비유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상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소중한 삶을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꽃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주님 포도밭의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그림묵상

우리를 위해 도조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곧 건강, 시간, 재능까지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조각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당신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포도원을 우리 차지로 주신 사랑, 곧 성체성사는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몸이고 피입니다. 미사는 이 큰 사랑의 축제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이사 5.1-7 <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다. >



주 님 의 포 도 밭 은 이 스 라 엘 가 문 이 로 다

- 당신께서는 에집트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방인을 내쫓으시고 심어 주셨나이다. 그 가지들 바다까지 뻗어 있었고 돌아난 그 줄기 강까지 뻗었었다. ◎
-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그 울타리를 부수시어 길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도야지가 휩쓸게 하시고 들짐승이 먹어내게 하시나이까. ◎
- 주 만군의 하느님 돌아오소서. 하늘로서 굽어보사 살펴 주소서. 비오니 포도밭을 찾아 주소서. 지켜주소서. 당신의 오른손이 심어 주신 줄기를 당신 위해 실히해 주신 그 가지를 ◎
-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리니.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 기리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 힘을 돌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 주소서. 저희가 당장 살아나리다. ◎

제 2 독서 : 필리 4.6-9

<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복 음 : 마태 21,33-43 < 주인은 다른 조각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

세 마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나는 믿을만한 사람인가? 내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믿고 일을 맡기는가?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까?

우리는 믿음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느냐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복음에 나오는 소작인들의 품성이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포도밭 임자가 소작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멀리 떠난 것을 보면 믿을만한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출을 받기 위해 포도밭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이 종들에게 보인 소작인들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작인으로 주인에게 내어야 할 당연한 몫을 주지 않으려는 이들은 전혀 믿음직스런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포도밭 주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밭을 통째로 맡길 수가 있었을까? 전혀 이런 기미를 알아채지 못했던 말입니까? ‘설마!’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주인은 자기가 완전히 믿고 맡기면 소작인들의 행실이 어떻든 다 잘 할거라 믿었던 것일까요? 순진했던 것인가요? 주인은 철저히 소작인들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주인에 대한 소작인들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창조되어 이 세상에서 숨 쉬며 사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지고 그 숨결을 느끼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가 성실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셔서 내게 이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하고 사악한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 전폭적인 믿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믿음’의 시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에 떨어지고, 나 자신과 이웃들을 해하면서 사는데도 하

님께서는 믿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라와 주겠지”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은 내가 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의 넓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만한 일을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을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만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지 못하고 배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믿지 못할까요? 복음의 소작인들을 보면, 욕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도 우리는 뭔가 더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큰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무엇을 바랍니다. 포도밭 소작인으로 불린 것에 감사하기를 잊어버립니다. 주인이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 처음에 소작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아끼고 믿고 사랑하구나! 고맙다. 열심히 일해서 보답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고마움도 보답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가져야겠다는 욕심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감사로 보답했었는데, 지금은 눈 벌겍게 내 욕심을 채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욕심을 하나님 대전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주시기를 믿습니다.



- 예수회 김동일 신부 -

주춧돌

제 1 편 하나님 공경

제11장 손을 들면 우세하였다



그때 아말렉족이 들려와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탈출 17,8-11)

【주석】

아말렉족: 네겟 지방에 살던 족속으로 이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인들의 가나안 땅 유입을 반대하였다. 이들은 에사우의 자손들과 관련된다(주석 성경, 224).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며 장차 그의 후계자가 된다(상동).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의 이러한 몸짓은 승리가 싸우는 이들이 얻어 낸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준다(상동).

【설명】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아말렉족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뜻이다. 기도는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을 지닌다. “마귀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바빠 사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숨 쉬지 않고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체험하게 된다.

【교회의 가르침】

▶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 자신의 원의라는 고자세에서 하는가, 아니면 “깊은 곳에서”(시편 130[129],1) 뉘우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가? 겸손한 사람은 드높여진다. 겸손은 기도의 초석이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로마8,26). 겸손은 기도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비는 걸인이기” 때문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559항).

【어록】

▶ 기도만큼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어려운 것을 쉽게 해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죄에 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김없이 영벌(永罰)을 자청할 것입니다(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 기도의 결실은 기도할 때의 근신과 경건한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모든 이가 주장해 왔다(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